# 최고를 향한 첫걸음

## 일광종합무역상사

창업한 지 만 4개월 째 되는 일광종합무역.
일광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신생기업에 불과하지만 서서히 주목받는 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코코넛이라는 다소 생소한 재료로 제과업계에 뛰어든 일광. 그들을 찾아
창업과정과 경영전략을 들어보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해 호기심 보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다. 이런 경계심은 때로 새로운 것을 알려 하기 보다는 무조건 배척부터 하고 보는 선입견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 이런 선입견에 강하게 도전장을 내민 기업이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재료인 코코넛을 무기로 제과업계에 뛰어든 일광종합무역. 일광의 창업과정과 경영전략을 함께 들어본다.

### 제과점 반응을 통한 꼼꼼한 시장조사

일광의 이왕림(42) 사장은 96년 12월부터 무역계통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그러나 무역업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그는 모든 것이 막막하기만 했다.

방향을 잡지 못한 채 한달을 보낸 그는 올 1월 우연한 기회에 필리핀 피에스타의 코코넛 제품을 접하게 된다. 피에스타는 코코넛 제품으로 일본과 대만을 비롯 유럽 전역에 걸쳐 폭넓은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수출회사다. 직접 제품을 시식한 그는 막연했던 자신의 사업에 방향을 잡게 되었다.

"코코넛 제품은 아직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생소한 제품이긴 하지만 담백한 맛과 건강식품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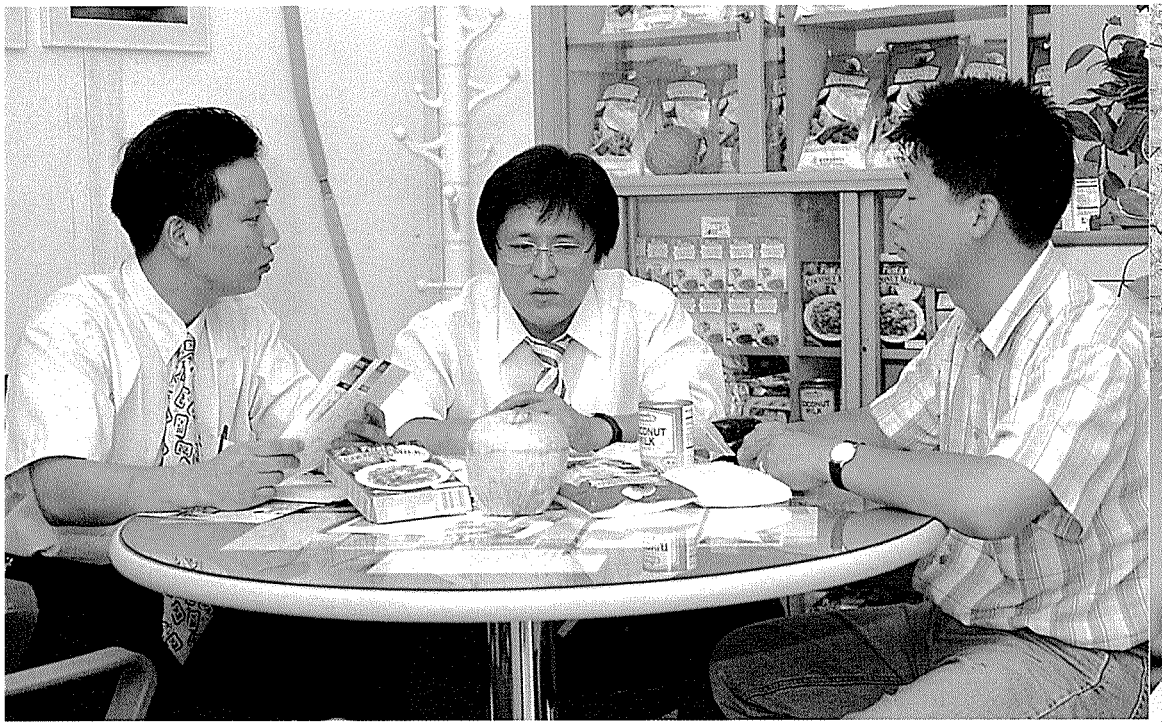
그는 곧 필리핀 본사와 접촉하는 한편 각 부서 담당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무역에 대한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이 계통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인물을 선발했다. 직원 선발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면서 일광은 본격적인 시장조사에 들어갔다. 일광은 제과점에 코코넛을 직접 공급해 제품을 만들어 시식하게 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제과점에서 반응이 매우 좋았다. 시장조사결과에 만족한 일광은 마침내 97년 5월 성동구 행당동에 본사 사무실을 마련해 본격적인 사업전개에 들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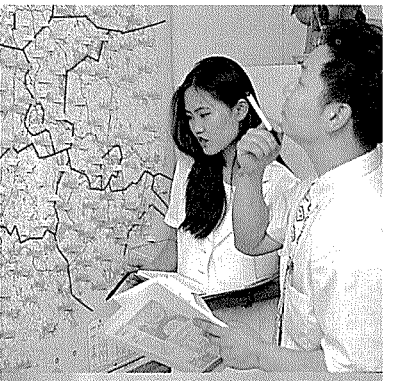
### 우수한 품질과 신용으로 기반 다지기

현재 일광은 행당동 본사를 비롯 종로와 구로에 영업부서를 두고 있다. 일광은 피에스타 본사로부터 코코넛 밀크 파우더와 말린 코코넛 등 분말 제품 6가지와 무균질 코코넛 크림이나 천연 코코넛 음료 등의 음료 제품 4가지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 시작한 지 불과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일광은 기반을 다지는 작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아직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생소한 재료에 대한 선입견이 가장 큰 어려움이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로운 재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다소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광은 이런 점을 감안해 본사 내에 제품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다. 제품 연구팀에서는 코코넛을 이용한 새로운 배합표를 개발하고 있다. 코코넛은 식물성 유지 제품으로 이를 첨가하게 되면 기존의 분유제품이나 우유 등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한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제품수는 총 아홉가지. 그 밖에 다양한 제품이 현재 개발중이다.





1. 김용근 과장(오른쪽)과 김영선 씨(왼쪽)가 제과점의 위치가 표시된 우리나라 전국지도를 보며 영업망을 확인하고 있다.
2. 이왕림 대표. 그는 담백한 맛과 건강식품이라는 장점을 지닌 코코넛 제품의 성공 가능성을 확신한다.

본사의 또 다른 부서는 대기업 전담반. 이 부서는 기업체 개발실과 직접 접촉해 일광의 제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곳이다. 현재 공급이 확정된 대기업만도 세 곳에 이르고 있으며 다른 기업들도 교섭이 한창 진행중이다.

종로와 구로의 영업부는 주로 제과점을 전담하는 곳이다. 각 지역별로 제과점 수와 위치 등을 파악해 제품 연구팀에서 개발한 새로운 배합표를 통해 코코넛 제품의 홍보를 맡고 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제품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가가 높더라도 좋은 제품을 수입해 마진율을 낮춰 공급하고 있지요."

일광은 우수한 품질만을 엄선해 공급하는 소수주의 경영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신용을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 가을시장을 겨냥한 대대적인 홍보준비

아침 9시가 채 되기 전부터 일광 사무실은 그날 자신의 스케줄을 확인하는 사람들로 분주하다. 업체별 관리 현황표를 보며 전날까지의 진행상황과 오늘 만나야 하는 업체를 확인하는 사람들에서 한쪽 벽에 붙여 있는 우리 나라의 전국지도를 보며 전국 제과점의 위치와 숫자를 표시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직원 모두가 일에 대한 열의로 가득차 있다.

일광은 올해안에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얼마 전까지 일광은 사원들이 개인적으로 일일이 뛰어다녀야만 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세미나와 무료 시식회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작업에 들어간다.

"아직까지는 신생기업에 불과하지만 직원들 사이의 단결력과 영업력만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일처럼 생각하며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볼 때 든든함을 느끼게 되지요."

일광은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재택 근무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 한해에 두 번 정도 해외파견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일광은 막 걸음마를 시작한 신생기업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들이 지금 보여주는 추진력과 조직력은 그들의 앞날에 대해 감히 성공을 장담케 하는 힘이 엿보인다.

〈글/김경옥〉